

독일 한인2세들의 정체성과 인종적 제노포비아 문제*

— 마르틴 현의 두 텍스트에 분석

최윤영**

[초 록]

이 글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경을 넘는 대규모 노동이주와 더불어 제노포비아가 확산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제노포비아는 최근의 사회이론에서는 인종주의와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제3제국이 야만적으로 벌인 인종주의 폭력과 학살의 과거에 대하여 전후 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한 과거사 극복의 노력으로 인해 인종 문제는 더 이상 주요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 경제개발시기에 대규모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과 최근의 대규모 난민유입은 주류사회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1011167).

** 서울대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주제어: 이민2세, 인종적 제노포비아, 마르틴 현, 『말 없이 - 예, 언어 없이 - 아니 오: 한국과 독일 사이의 경계인』, 『일하지 않으면 먹지마라』
Zweite Migrantengeneration, rassistische Xenophobie, Martin Hyun, Lautlos - ja, sprachlos - nein: Grenzgänger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Ohne Fleiss kein Reis

이질화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경제적 위기나 민족의 통일 등 대규모 사회구조의 변화를 겪으며 불만이 고조되면 이는 인종적 타자들에게 투사되어 희생양을 만들어 내거나 극우파의 부상을 가져왔다. 이 글은 아시아계 독일인을 대상으로 고찰하는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형태의 인종주의 보다는 사회 저변에 보다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보다 빈번하게 발견되는 일상적인 배제와 차별이라는 형태로서의 인종주의를 다룬다.

마르틴 현의 두 텍스트 『말 없이 - 예, 언어 없이 - 아니오: 한국과 독일 사이의 경계인』과 『일하지 않으면 먹지마라』는 한인2세대들이 독일 사회에서 겪는 일상 삶과 통합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민2세대들은 고향, 민족, 인종, 정체성, 독일사회의 고정관념 등에서 1세대들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며 세대 차이를 드러낸다. 2세대들은 가정에서는 부모들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지만, 사회에 진출해서는 - 비록 문화적으로 완전히 동화되었다 하더라도 - 한국계 독일인으로서 피부색과 외모의 가시성으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현의 텍스트들은 독일사회의 일상 속에서 노정되는 타자들에 대한 불안과 차별, 배제를 다루고 있다. 조용하고 모범적인 이민자로서의 1세대들의 이미지에 대항하여 2세대들은 최근 자전적 글쓰기 등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단체 구성 등을 통하여 한국계 독일인으로서의 자기주장을 하고 더 나아가 아시아계 독일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임파워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에 대한 연구는 독일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문제해결 뿐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사회 이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1. 이주자와 제노포비아

현재의 세계화 물결은 동일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면서 그 동력으로 국경을 넘는 대규모 인구이동(노동이주, 결혼이주 등)을 부대현상으로 가져왔다. 세계화와 더불어 삶의 기획에서 이동성과 유동성의 특징이 강화되고 더불어 개인과 사회의 정체성의 규정에서도

초민족적, 초경제적, 혼종적 요소가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이면 현상으로 낯선 집단의 대규모 유입은 주류사회에 집단 정체성에 대한 불안을 확대시키고 타자 집단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독일에 유입된 난민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15년 말 독일 쾰른의 송년의 밤 난동, 2016년 말에는 베를린의 트럭테러와 같은 이주민, 이방인에 의한 폭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질화에 대한 주류사회의 대응으로 한편으로는 독일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반성적 성찰을 촉발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나 ‘폐기다: 유럽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 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 PEGIDA’ 같은 극우정당의 부상을 가져왔다.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주류사회와 낯선 이방인의 관계에서 유사한 대응 패턴들이 계속 반복됨을 볼 수 있다. 이방인, 이주민의 유입에 대한 반응은 그 타자 집단 자체뿐 아니라 주류사회의 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진폭이 수용, 인정에서부터 거부, 동요까지 변주되고 있다. 최근만 보더라도 독일에 전후 경제부흥기에 대규모로 유입된 ‘이주노동자들 Gastarbeiter’은 상당 부분이 독일에 남아 ‘이민자 Migrant’들이 되었다. 이들에 대한 수용여부는 독일 사회의 내부사정에 따라 부침이 심한데 예를 들어 통일 직후에 통일에 대한 독일인의 불만이 이들에게 투사되어 테러와 폭력으로 표출됨으로써 큰 위기를 겪었었다. 최근 독일은 또 다시 전체 주류사회에 확산되는 타자, 타 인종에 대한 ‘제노포비아 현상(이방인에 대한 혐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주류사회와 타자인 이방인 관계를 고찰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지만 이제까지 독일사회를 대상으로는 인종주의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유럽사에서 인종적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이미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 근세사 최대의 비극은 유럽의 유대인들을 들

리싼 국가적, 조직적, 체계적 폭력인 쇼아(홀로코스트)였다. 이 대규모의 야만적 파국이 지나간 후 유럽사회, 특히 독일 사회는 제3제국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자국 내에 더 이상 인종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마테우스 안토니아 재단이 밝힌 것처럼 극단적인 예로 1980년 이후 극우파 세력에 의한 살인 사건만 75건이 넘는다.¹⁾ 인종주의의 배제와 폭력이 실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주류사회의 인종적 색맹 현상뿐 아니라 불모지나 다름없는 인종연구 현황은 이러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제까지 나온 소수의 연구들도 독일사회가 백인 중심의 사회라는 지적을 바탕으로 한 연구뿐이고 인종주의 피해자 그룹에 대한 연구도 흑인을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연구되었고 방법론으로는 포스트식민주의의 이론과 시각이 원용되었다.²⁾ 최근에 와서야 아시아인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이 또한 인종과 민족의 다름, 또한 몸의 다름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이나 독일사회를 대상으로는 인종주의나 제노포비아는 아직 거의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³⁾

-
- 1) <https://www.mut-gegen-rechte-gewalt.de/news/chronik-der-gewalt/todesopfer-rechtsextre-mer-und-rassistischer-gewalt-seit-1990>.
 - 2) Claus Melter et al. (Hrsg.)(2009), *Rassismuskritik: Band 1: Rassismustheorie und -forschung*, Schwalbach: Wochenschauverlag; Marianne Bechhaus-Gerst et al. (Hrsg.)(2009), *AfrikanerInnen in Deutschland und schwarze Deutsche - Geschichte und Gegenwart*, Münster: LIT Verlag 참조.
 - 3) 독일 문학과 인종주의에 대해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가 있으며 이 경우 외모상의 유사성 때문에 미국의 흑인연구에서 차용한 ‘패싱’ 개념을 다루고 있다. 최윤영(2014), 「인종의 가시성과 소속성 - 독일 유대인의 동화와 패싱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 23, pp. 183-202 참조 그러나 한국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피부색과 외모의 차이가 큰 경우로서 문화적 패싱과 같이 간접적으로 밖에 적용할 수밖에 없다. 혼혈이나 입양인의 경우는 이러한 혼종과 패싱의 예를 논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일단 2세들에 주목한다.

2.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2.1. 독일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연구

박경태의 정의에 따르면 인종이란 “신체적 특성에 기초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집단”이다.⁴⁾ 즉 다시 말해서 인종이란 생물학적 특징을 기초로 하지만 그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특성이 사회문화적으로 해석된 것이다. 때문에 인종의 정의에는 생물학적, 자연과학적 범주와 문화적, 사회적 범주가 같이 작용한다. 또한 그 나타나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장명학은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차이를 다음처럼 구분해서 논한다.⁵⁾ 그는 첫째 역사적 관점에서 인종주의를 식민지 산물로 보고 있으며 둘째 이를 백인 인종우월주의로 한정짓고 독일의 경우는 제노포비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구분을 반박하고 있으며, 독일도 역시 최근의 제노포비아를 신인종주의 안에서 같이 포함시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송태수는 독일을 영국과 프랑스와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독일의 인종주의적 경향을 요약하고 있다. 독일의 “인종주의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덜 새롭고(less new), 덜 문화적이며 덜 차별적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독일에서는, 영국에서의 백인과 유색이주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인종충돌과 달리, 외국인에 의한 극우파의 일방적인 테러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⁶⁾ 독일의 인종주의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통일 이후에 구 동독지역에서 시작되어 독일 전역에서 발견되는 극우파의 폭력과 테러는 전형적인 인종주의의 형태를 띠고

4) 박경태(2009), 『인종주의』, 서울: 책세상, p. 13.

5) 장명학(2006), 「독일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김세균 외, 『유럽의 제노포비아』, 서울: 문화과학사, p. 93 이하 참조.

6) 송태수(2006), 「제노포비아 현상과 원인: 영국, 프랑스, 독일 비교연구」, 김세균 외, 『유럽의 제노포비아』, 서울: 문화과학사, pp. 171-172.

있다. 독일에서 2000년대 들어와 이민자에 대한 테러행위가 10년 전보다 4배나 증가했고 국내외 연계망을 조직한 극우테러조직 인물들도 1만 명을 상회하며, 특히 구동독지역은 인구는 전체인구의 20%이지만 극우테러는 전체의 50%를 차지한다.⁷⁾ 이러한 경향들을 인종주의라 부르든, 혹은 인종주의적 제노포비아라고 부르든 독일사회의 갈등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독일의 인종주의에 대한 소수 연구도 ‘흑인성’, 혹은 ‘백인성’ 위주로 다루어졌다면, 아시아인들의 문제는 더욱 소외되고 있다. 최근 거의 유일하게 베트남계 사회학자인 하 Kien Nigh Ha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보트피플로 독일에 왔는데 연구서 『아시아계 독일인 *Asiatische Deutsche*』(2012)의 편집인으로서 학회나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서 발표된 글들을 모아 디아스포라와 독일의 인종주의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초들은 고향이나, 이방인, 우리와 타자, 규정과 이탈 등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표상들을 허물어트린다. 왜냐하면 뿌리내림이나 거부와 배제 등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자명한 지식이라고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민자 주체성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의 미래에 대한 구상과 현재에 대한 이해 그 자체이다.

‘아시아계 독일인’이라는 제목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고찰이며, 독일적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적일 수 있는, 아직까지 끝까지 파헤쳐지지 않은 창고의 수많은 보고 안에서 가능한 정체성의 위상을 제안하는 것이다.”⁸⁾

하는 아시아계 독일인들(주로 베트남인, 중국인, 한국인 등)이 독일주

7) 박경태(2009), p. 128.

8) Kien Nigh Ha (2012), *Asiatische Deutsche*. München: Assoziation A., p. 17.

류 백인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상을 정해 나가며 또한 자기정체성을 관철시키려 노력하는가의 문제와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타자화하고 배제되는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후 독일에서 일어났던 인종주의의 단적인 예라 할 극우파의 테러를 노골적인 인종주의라고 지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외국인 혐오 *Ausländerfeindlichkeit*”, “타자 혐오 *Fremdenfeindlichkeit*” 같은 일반적 현상의 저변에도 인종주의가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베트남인들은 같은 아시아인이면서도 보트 피플이나 구동독의 “계약노동자 *Vertragsarbeiter*”, 입양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독일사회에 유입이 되었고, 특히 통일 후에 구동독지방에 남은 가장 큰 외국인 집단으로서 인종주의의 테러와 폭력을 직접 경험하였다. 1992년에 발생한 로슈톡의 해바라기집 난민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인들은 같은 아시아인들이지만 베트남인들과 달리 특정시기(60, 7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서독으로 유입되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Gastarbeiter*” 신분으로 노동계약을 맺고 법적 보호를 받는 신분으로 유입되었으며 인종차별에 의한 극단적 폭력이나 테러의 희생자로는 강하게 주체화된 적이 없다.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인종적, 민족적 차별 문제를 언급하거나 다루어진 적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외국인 증오에 의한 극단적 폭력의 경우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보이지 않는 배제와 차별을 더 많이 문제시 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넓게 퍼진 인종주의는 문화적, 민족적 색채를 띠고 있는데 박경태는 이를 “신인종주의”라 지칭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신인종주의는 유전적 특성 대신에 문화가 본질적 차이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인종이 하던 역할을 문화가 대신하고 있다. 신인종주의자들은 새로 온 이민자들에게 너희 문화를 버리고 자신의 문화를 수용하면 사회 성원으로 받아들여주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에는 종교나 언어와 같이 버리기 어렵거나 쉽게 바뀔 수 없

는 것이 있다.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신인종주의는 본질적으로 과거의 인종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⁹⁾

인종주의를 근본적으로 논한다면 소위 주류사회 ‘토박이’의 ‘현지성’¹⁰⁾이나 인종의 ‘경계 만들기 making boundaries’ 등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지만, 이 논문은 주로 희생자로서의 ‘당사자들 die Betroffenen’의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대상으로는 아직까지 학술적 주목을 받지 못한 독일의 한인 이민 텍스트를 다루되 특히 2세들의 주장에 주목한다. 현대사회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한 대응원칙은 크게 보아 ‘동화’와 ‘다문화주의(혹은 다원주의)’의 대립으로 나눌 수 있다.¹¹⁾ 독일사회에 적용하면 특히 기독교민주당(CDU) 집권 시기의 정책은 동화의 원칙이었고, ‘주도문화논쟁 Leitkulturdebatte’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즉 외국인, 이주민, 난민은 독일사회에서 살려면 독일 문화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동화의 원칙 자체가 바로 신인종주의와 연결된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다수 독일의 한국교포들이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른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동화론자들의 논리를 따르면, 독일 내의 이민자 그룹 중 모범적 이민자로 꼽히고 성실하고 묵묵히 통합된 한인 이민자들은, 특히 2세들은 이러한 신인종주의를 겪지 않거나, 혹은 덜 겪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현실이 그러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동시에 이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인종 문제는 민족과 같은 세분화된 시각뿐 아니라 보다 큰 차원에서 ‘아시아성 Asianness’, 혹은 ‘아시아계 독일인 Asiatische Deutsche’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유럽에서 아시아인들은 오랫동안 “소속되지 않는, 이국적인 이방인”으로

9) 박경태(2006), p. 132.

10) 크리스티앙 들라팡카뉴(2013), 하정희 역, 『인종차별의 역사』, 서울: 예지, p. 313.

11) 마르코 마르티니엘로(2002),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P. 87.

여겨져 왔고,¹²⁾ 유럽인의 눈에 세부적으로 민족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중국인’으로 통칭되어 왔다.¹³⁾ 한국계 노르웨이 입양인 브뤼올 프 용 티엔의 문제작 제목이 한국 출신 입양인을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통칭인 『중국 남자 China Man』(2011)를 제목으로 택한 것도 그러한 이유이다.¹⁴⁾ 본 논문에서는 마르틴 현의 텍스트를 이러한 시각에서 분석하되 직접적 인종주의 형태보다는 간접적으로 문화 속에서 표현되는 인종주의에 주목하며, 특히 정체성, 세대 차이와 고정관념의 문제를 통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2.2. 이민자의 정체성, 세대 차이 그리고 고정관념

유럽 최대의 한인교포사회를 이루는 독일 내 한인 이주민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다. 60, 70년대 대규모로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되었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귀국하지 않고 독일에 남은 사람들은 약 3만여 명이고 이들의 2세들은 약 2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현재 독일 교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민1세와 이민2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함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민1세는 자신을 독일에 사는 ‘한국인’으로 규정하는 반면, 2세들은 대체로 독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독일문화에 더 친근함을 느끼고 이민법의 개정으로 실제로 독일국적을 부여받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세대 간의 자기정체성과 자기주장의 차이는 가정 내에서는 부모세대와, 사회로 진출한 후에는 주류사회와의 갈등을 자아낸다. 전자의 갈등 원인이 혈연 가족이지만 문화적 차

12) Kien Ngh Ha (2012), p. 2.

13) 예를 들어 들라캉파뉴의 경우 그의 『인종차별의 역사』(2013)에서 『외국인 차별이라는 폭탄』이라는 한 장을 할애하여 유럽 전체의 인종주의의 역사 안에서 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크리스티앙 들라캉파뉴(2013) 참조.

14) 박정준(2014), 한국 출신 국외입양인 문학에 나타난 자아 재구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조.

이에서 기인한다면 후자의 중요한 차이는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몸과 인종의 차이, 그리고 그 가시성과 그로인한 차별에 있다.¹⁵⁾ 1세대들은 스스로가 독일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고 또한 그들이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문화에 완벽하게 통합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점은 특히 2세대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한데, 이들은 1세대들에게 언어나 문화, 관습 등에 있어 보다 날카로운 평가 잣대를 들이대고 있고 적응의 불충분함에 때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¹⁶⁾ 2세대들은 부모세대와 달리 독일어가 모국어라 할 수 있으며 언어와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있고 대체로 - 부모들의 교육열에도 힘입어 - 교육 정도도 중상층 이상에 속한다. 또한 독일 시민권을 획득하고 국방의 의무도 이행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 이민자와 더불어 언급되는 많은 “일반적인 오해”와는 거리가 멀다.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독일사회에서 자주 타자나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자아정체성과 타자정체성으로 구성되며, 이민자의 경우 주류사회의 ‘선입견 Vorurteile’과 ‘고정관념 Klischees’은 타자정체성의 주요요소인데 소수집단인 이민자의 자아정체성과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타자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특히 고정관념은 만연성과 지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¹⁸⁾ 그 때문에 옳

15) 이러한 차이는 민족적 차이가 아니라 인종적 차이이다. 민족과 인종의 차이에 대해서는 “인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들에 관련되어 있다면, 민족성은 단순한 인종적 유사성을 넘어서 공유된 문화적 특성들과 (또는) 출신국가로 확장된다.” Vincent N. Perrillo (2010),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역, 『인종과 민족 관계의 이해』, 서울: 박영사, p. 25. 이에 반해 민족 집단은 인종, 종교, 출신국가라는 3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16) 현은 2세대들의 1세대들에 대한 여러 의견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2세대들의 눈에 1세대들은 여전히 한국식 문화를 고수하고 독일어를 훌륭하게 구사하지 못하며 독일문화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여 행동이나 양식이 눈에 띈다. 이하 Martin Hyun (2008), p. 75쪽 이하 참조.

17) 크리스티앙 들라팡카뉴(2013), p. 314.

고 그림의 문제를 차치하고 주류사회의 타자에 대한 인식의 기본토대이자 인지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민자는 자기의 근원, 문화, 민족 집단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국 취향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에서 거의 언제나 한 민족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사회가 강요하는 이국적 이미지에 부합되어야만 한다.”¹⁹⁾ 이민자들의 정체성 구성에는 중심부사회와 주변부사회의 권력관계가 반영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학자 페릴로는 주류사회와 이방인의 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토박이들은 추상적이고 전형화된 방법으로 이방인을 인식한다. 즉, 개인이 한 집단의 전체 또는 전형이 된다. 그러나 이방인은 토박이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들로 인식한다.”²⁰⁾ 즉 주류사회는 이방인들을 집단으로 호명하고 분류한다면 이방인들은 주류사회의 구성원을 개개인으로 파악한다. 이주민들은 이러한 권력의 차이를 반영하는 주류사회 시선의 주체성과 자신들의 객체적 위상 관계를 타파하고, 주류사회가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을 개인으로 인식하듯 자신들도 그렇게 ‘개인’으로, 또한 집단의 일반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많은 경우 이방인들이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방인에 대한 인식도 구체화, 개별화, 개인화되어간다. 마르틴 현 역시 주류사회가 소수집단을 바라보는 고정관념과 편파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개인으로, 또한 독일문화에 속하는 시민으로 인정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자기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전적 글쓰기는 자기이해와 상호이해에 매우 효과적이다.

독일의 한국 이민2세들은 최근 들어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수기, 자서전, 문학, 영화, 혹은 학술논문, 홈페이지, SNS 등 여러 형태로 공적 영역

18) 마르코 마르티니엘로(2002), p. 131. 편견은 고정관념에 의해 많이 생성되지만 타자 집단과의 접촉이나 시간이 감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19) 마르코 마르티니엘로(2002), p. 118.

20) Vincent N. Perrillo (2010), p. 11.

에서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문학 텍스트의 경우는 아직 많은 경우 본격 문학이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한국이나 독일 문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화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관련 예술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주제성이나 시의성 뿐 아니라 작품성 또한 높은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²¹⁾ 이들이 주장하는 차이와 이들이 받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이해는 현대 다문화사회의 갈등 해결과 상호이해,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들 2세들의 텍스트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분석한 연구는 독일이나 한국에서 이제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한인2세들의 텍스트는 관점에 따라 한인1세의 텍스트보다는 터키나 베트남 혹은 동구권 등 여타 다른 나라 출신의 부모를 둔 이민2세대 그룹의 텍스트와 더 큰 유사성을 보인다. 국내의 드문 연구로 파티 아킨의 영화 <미치고 싶을 때 Gegen die Wand>를 분석한 논문과 자이모글루의 터키2세들의 삶을 다룬 문제작 『카낙 스프라카 nak sprak』을 다룬 논문, 야데 카라의 『젤람 베를린 Selam Berlin』을 다룬 논문 등이 나와 있는 정도이다.²²⁾

3. 한인 이민2세 작가 마르틴

마르틴 현(Martin Hyun, 한국명; 현종범, 1979-)은 독일 크레펠트에서 태어났고 독일의 전 국가대표아이스하키 선수이며 최근에는 주로 ‘통합

21)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를 무대로 하는 안나 킴이나 독일에서 활동하는 조성형 감독을 들 수 있다.

22) 이숙경(2007),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 찾기 - 독일 영화 <미치고 싶을 때>에 대한 연구」, 『카프카연구』 17, pp. 321-338 참조/이홍경(2012), 「카낙의 역담화」, 『독일어문학』 56, pp. 328-338/ 최윤영(2008), 「이민2세대 문학에 나타난 공간과 정체성의 문제. <미치고 싶을 때>와 『젤람 베를린』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106, pp. 278-301 참조.

Integration'을 주로 주제화하는 한국계 작가로 독일에 알려졌다.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크레펠트의 펭귄 팀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로 두각을 나타냈고 독일 주니어 국가대표선수로서도 활약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여러 고등학교 팀에서도 활약했고 특히 버몬트 주 소재의 성 마이클 대학의 퍼플 나이트 팀에서 활약했다. 이 대학에서 마르틴 현은 선수생활을 하면서 정치학을 공부했으며 켄터베리 소재 켄트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논문을 썼다. 이후 독일의 원래 팀으로 돌아왔고 독일 정규리그에서도 활약했다. 선수생활을 마감한 뒤 그는 한국에 돌아와 통일 관련 일과 한독 교류 관련 일을 했다. 2008년 『말 없이 - 예, 언어 없이 - 아니오: 한국과 독일 사이의 경계인 Lautlos - ja, sprachlos - nein: Grenzgänger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을 출판하였고,²³⁾ 2012년에는 두 번째 책 『일하지 않으면 먹지마라 Ohne Fleiss kein Reis』를 출간하였다.²⁴⁾ 2014년에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쾰른의 한 터키협회로부터 '통합상'(Integrationspreis)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통합'을 주제로 본 대학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 독일의 한국 이민자그룹을 대표해서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고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국가대표팀의 아이스하키 코치로 일하고 있다.

마르틴 현은 종종 '한국의 카미너'라 불린다. 이 별칭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우선 그도 이민자가 카미너처럼 자신이 관계된 두 나라의 문화차이를 글쓰기의 주요소재로 삼고 있다. 이민문학은 장르의 특성상 양문화비교를 주요주제이자 소

23) Martin Hyun (2008), *Lautlos - ja, sprachlos - nein: Grenzgänger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Hamburg: EB-Verlag, 이하 텍스트 인용은 본문에서 둥근 괄호 안에 연도와 쪽수만 명기한다.

24) Martin Hyun (2012), *Ohne Fleiss kein Reis*, Berlin: btb-Verlag, 이하 텍스트 인용은 본문에서 둥근 괄호 안에 연도와 쪽수만 명기한다.

재로 삼고 있다. 저자는 고향에서 보낸 유년시절의 회상을 통해 독일 독자들에게 낯설고 이국적인 문화를 소개하거나, 혹은 출신국과 독일의 문화를 비교하고 있다. 카미너는 구소련에서 출생했고 막 성인이 되어 독일에 이주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나라, 두 문화, 두 민족을 비교하고 있다. 현의 경우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광부와 간호사 출신의 부모가 한국적인 가정을 꾸려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두 나라, 두 문화, 두 민족, 두 인종 차이를 가정에서부터 의식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그의 관찰은 그의 한국방문으로 더욱 세밀해지고 폭이 넓어지며 혼종적 특징도 강해진다.

두 번째로 글쓰기 양식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다.²⁵⁾ 카미너의 경우 통속문학에 가깝고 가볍다는 특징 때문에 평가절하가 되기도 하지만, 최근에 독일에서 출판된 문학사 가운데 하나인 바르너의 문학사에서도 최근 독일문학의 주요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카미너는 “우스꽝스러운 미니어처와 일화”의 형태로 경험을 전달하고, “문학의 깊이나 날카로움은 없지만 표피만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순간포착”이 특징인 작가로 소개된다.²⁶⁾ 카미너의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메가베스트셀러 『러시아인 디스크 Russendisko』(2000)는 저자의 독일 문화 관찰을 담은 짧은 에세이들을 모은 책이다.²⁷⁾ 저자는 과장을 섞어 짧고 유쾌하고 가벼운 문체로 자신의 관찰을 묘사하고 풍자와 해학이 가득 담긴 이야기로 펼쳐놓는다. 카미너는 이때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동시에 이를 풍자하고 비판하는데 마르틴 현도 유

25) 이때 같은 이민 작가 블라디미르 카미너의 지지를 받았고 카미너는 자신의 책 『Salve Papa』의 「Die Begabung」장에서 마르틴 현과 독일에 퍼진 한국인의 고정관념에 대한 글을 썼다. Wladimir Kaminer (2010), *Salve Papa*, München: Goldmann 참조. 이 둘은 2010년 서울을 같이 방문하여 괴테 인스티튜트에서 강연하였다.

26) Wilfried Barner (Hrsg.)(2006),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Beck, p. 1005.

27) Wladimir Kamier (2000), *Russendisko*, München: Manhatten-Verlag.

사한 문체를 구사한다. 현의 첫 번째 책이 신문 등의 칼럼과 유사한, 다소 진지한 문체를 구사한다면 두 번째 책은 더욱 카미너의 문학적 문체와 유사해지고 있다. 실제로 카미너와 현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으며 최근에 카미너는 자신의 책에서 독일인이 한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고정관념이라 할 ‘개고기를 먹는 민족’이라는 관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 지인 마르틴은 크레펠트 사람이다.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 크레펠트인들은 독일 전체로 보면 평균 정도이고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지만, [마르틴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딪친 그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한다. 마르틴은 수의사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을 일찌감치 접어야했다. 그 어떤 크레펠트 사람도 애견을 한국인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르틴의 아버지가 다리 문제 때문에 혼자 산책을 하기 힘들게 되어 개를 한 마리 기르자 이웃 사람들 모두 그 개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고 ‘불쌍한 녀석’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 남자가 개를 몇 킬로 더 살을 찌워 늦어도 성탄절이 되면 거위처럼 잡아먹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르틴은 개고기가 어떤 맛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거의 독일 식당에만 간다.”²⁸⁾

위의 글은 한국인의 풍습에 대한 독일인의 편견을 유머러스하게 비꼬는데 그치지 않고 나름 진지한 고찰이 담겨있다. 마르틴 현은 어렸을 때 수의사로서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의 진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마지막에 보다시피 이리

28) Wladimir Kaminer (2008), *Aufgeben ist nicht mein Weg: Bildungswelten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p. 101.

한 집단에 대한 고정방식은 현의 실제 삶의 진실과도 들어맞지도 않는다. 카미너의 글쓰기 방식은 독일 사회에 만연한 고정관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고 신선하다. 그러나 이를 비꼬거나 간접적으로 비판하는데 그치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전복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마르틴 현도 위와 유사한 서사전략을 택하고 있다. 현은 안나 김(Anna Kim)처럼 진지하거나 다양한 서사기법을 쓰는 본격 문학을 추구하거나, 혹은 막심 빌러(Maxim Biller)처럼 현실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실주의적 글쓰기를 하지 않는다. 그는 주로 현실에 바탕을 둔 짧고 경쾌한 에세이들을 쓰는데 이는 칼럼니스트로서의 그의 직업에도 기인한다. 그는 한국과 독일 두 문화의 고정관념과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 바탕에 깔려있는 편견과 오해들을 양 시각에서 서로 비추고 공략한다. 그 어느 편을 들지 않으며 일상 삶에서 문화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묘사하고 있고, 고정관념의 경우도 실제 현실과 어떠한 격차가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묘사하는데 항상 언어적으로 과장하고 풍자와 해학을 곁들여 다루고 있다.

4. 마르틴 현과 이민자의 정체성

4.1. 세대 차이와 자아 정체성

마르틴 현은 두 텍스트로 독일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우선 2008년에 『말 없이 - 예, 언어 없이 - 아니오: 한국과 독일 사이의 경계인』를 발표했다. 이 책은 2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는 ‘독일’이라는 제목으로 한-독 양 문화를 겪은 교포 2세로서 독일의 한국 교포 가정과 사회의 구체적 일상을 다룬 30여 편의 글을 담고 있고, 2부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로 한국을 방문하여 독일인의 시각에서 한국문화를 관찰한 30여 편의 글을 담고 있다. 두 번째로 2012년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마라』를 발표하였다. 이 책은 총 66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는데 저자는 크레펠트의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대도시 베를린에서 전개되는 이민2세의 삶의 다루고 있다.

독일 내의 한인이민자 그룹은 대개의 교포그룹이 그러하듯 자세히 살펴보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다. 집단 내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뿐 아니라 세대 차이 또한 커서 다양한 차이와 편차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마르틴 현의 텍스트에 나타난 세대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²⁹⁾

4.1.1. 한국계 이민1세대들

마르틴 현의 글은 무엇보다도 이민1세대인 부모세대와 이민2세대인 자신들의 세대 차이를 주제화한다. 이때 집단정체성이 주요화두로 떠오른다.³⁰⁾ 독일의 한인교포들은 1세대와 2세대 모두 한국사회와 독일사회와 맺는 이중의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이민1세대들에게 한국은 떠나온 고향이고, 이들은 민족적, 인종적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을 한국인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사회화과정, 사고방식, 정서, 삶의 방식이나 주변 환경 등을 든다. 동시에 독일사회와의 깊은 관련성도 인정하는데 무엇보다도 독일은 현재의 직장과 가정이 있는 ‘삶의 장소 Lebensort’로서의 의미를 지닌다.³¹⁾ 그러나 2세들의 시각에서 보면

29) 예를 들어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는 독일 내의 한국출신 입양인들은 또 다른 방식의 삶의 내러티브와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다.

30) Jan Assmann (2002), *Das kulturelle Gedächtnis*, München: Beck, p. 132. “집단정체성은 그 단체에 소속된 각각의 개인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동일화의 문제이다. 집단정체성은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들이 집단정체성을 얼마만큼 지지하고 신봉하는가가 문제이다.”

31) 이선희(2012), 『재독한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인식문제와 정체성 변천 과정』, 『한국사연구』 158, p. 308.

부모세대의 이러한 자기주장은 사회 속에서가 아니라 주로 가족 내에서만 영향력을 가진다. 현은 독일이 그간 이민국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여 한국인들은 독일에서 살면서 자신의 가정 속에 한국이라는 “자신만의 병행사회”를 만들었다고 분석한다(2008, 23). 타향에서 부모세대들의 이러한 민족의식은 더욱 견고해지고 한국사회에 대한 관심이 독일사회에 대한 관심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이들은 독일에서도 전형적인 유교 가부장 사회처럼 자녀들의 진로나 직업 결정, 결혼 등에도 영향을 끼치려 한다. 한국식으로 자녀에게 장래가 안정된 전공이나 진로를 강요하는데 이는 독일식 개인주의 문화를 습득한 2세들의 눈에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 “2세들은 부모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고정관념들이 떠오른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학교를 잘 다니고 무조건 대학에 가라하고 전공은 특히, 의학, 법학, 경영학이어야 하며 적어도 악기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한다.”(2008, 75) 그 외에도 교회에 다녀야 하며 뽀뽀이 흠어져 살아도 한인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하라 가르치고, 자신들에게 중요할 수도 있는 독일 내부 정치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2세들의 눈에 비춰진다.

4.1.2. 한국계 이민2세대들

독일의 한국인 2세대들 역시 한국과 독일, 두 나라, 두 문화와의 이중적, 복합적 관련성으로 정체성이 특징이 지워진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국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이선희에 따르면 한국은 부모님의 고향이며 한국어는 부모의 언어로 인식되고 자신들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며 독일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의 터전이고 독일어가 모국어이며 독일식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현은 이에 대해 “독일은 나의 집인데 우리 부모들은 외국인이다.”라고 다른 2세의 말을 인용한다(2008, 76).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속한 이민자 그룹에 대하여 이들이 사용하는 명칭이다. 현은 첫 번째 책에서는 “독일-한국인 Deutsch-Koreaner”라는 명

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방점은 한국인에 놓인다. 두 번째 책의 부제인 『내가 어떻게 좋은 독일인이 되었는가』는 2세들의 독일 정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좋은 한국인이냐 한국계 독일인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좋은 독일인 ein guter Deutscher”이 되었는가라고 반어적으로 쓰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계 미국인 Korean-american’이라 불릴 때의 방점은 미국인에 놓인다. 베트남 사회학자 하 역시 “아시아계 독일인 Asiatische Deutsche”이라고 주장하듯 그들의 독일 소속성을 강조하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과 같은 2세들의 정체성 주장은 실제로는 “독일계 한국인 Deutsch-Koreaner”이라기보다는 “한국계 독일인 Koreanische Deutsche”에 가깝다. 이들의 이러한 자기 정체성 규정은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외모를 뜻하는 인종적 요소보다는 자신의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주변문화에의 적응과 연관이 되는 ‘문화 정체성’ 혹은 ‘지역정체성’이라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2세들은 부모세대가 한국인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강조할 때 거부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성인이 되면서 강력하게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 이러한 2세들의 독립 바람은 한독 문화적 갈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류학적으로도 청소년기의 독립과도 관련이 깊고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독일문화와도 연관이 되어 보다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4.2. 정체성과 인종주의

대체로 이민2세들은 가정에서 그러했듯 주류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인화’ 전략을 택한다.³²⁾ 현의 경우도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사회에서는 주류사회의 백인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인이라는 고정된 틀이 아

32) 이 점은 다른 이민2세 소수집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예로 터키계 독일인 감독 파터 아킨이 만든 영화 <미치고 싶을 때>나 아데 카라의 소설 『젤람 베를린』을 들 수 있다. 이숙경(2007), pp. 313-326과 최윤영(2008), pp. 278-301 참조.

닌 개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마르틴 현은 성인이 되어 “시골스러운” 크레펠트를 떠나 부모로부터 독립하면서 “세계로 열린” 대도시 베를린에서는 “고정관념들이나 자신의 이민자 존재에 대한 늘 계속되는 방어 자세에서 벗어나”(2012, 26)며, 또한 더 이상 “자신의 아시아적 외모로 평가되지 않고 여성들에게도 “일본산 오락동물”(2012, 28)로 간주되지 않고”(2012, 28), 자신의 새로운 개인적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이민3세 소설가 돈 리가 자신의 소설 『옐로우 Yellow』(2002)를 두고 인터뷰에서 한 말은 시사적이다.

“이민 후 동양인이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가지는 정체성이 우선순위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나는 동양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나는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개인적이고 다양하며, 섹시하고, 예술적이며 미국의 다른 사람들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는 동시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일 대면해야 하는 편견들에 대해 사람들을 깨우치고 싶기도 합니다. 편견의 대부분은 스테레오타입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유능하고 열심히 일해, 동양 남자들은 허리띠에 계산기를 차고 방수 바지를 입은 변태야. 동양 여자들은 순종적이거나 야한 창부야 모두 나쁜 스테레오타입이고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³³⁾

독일 사회에서 한인2세대들은 자신이 아시아인이라는 인종적 정체성 문제와 본격적으로 직면한다. 2세대들은 언어나 문화면에서 완벽하게 독일사회에 적응했지만 이들의 ‘독일성’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의문에 부딪힌다. 피부색과 얼굴, 외모가 다른 아시아계 독일인들로서 소위 “토박이들”

33) 돈 리(2002), 임주현 역, 『옐로우』, 서울: 문학사상, p. 324. 그는 또한 이에 대해 미국인 3세의 문제를 다음처럼 서술한다. “노란 피부, 동글납작한 얼굴, 낮은 코, 작은 키는 언제나 너는 동양인이라는 시선으로 그들을 따라다닌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어를 모르며, 한국문화를 모르며, 한국인을 모른다.” 돈 리(2002), p. 322.

에게 평생 받게 될 질문 “어디에서 왔는가?” 혹은 “이런 일은 한국에서 라면 어떠한가?”라는 출신과 인종적, 민족적 소속성에 대한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들의 동화 노력을 무시하고 다시 인종적 타자로 낙인찍는 질문들이다. 이들의 다른, 혹은 다르게 보이는 ‘아시아적 몸’은 일상 속에서 독일의 백인 주류사회로부터 비현지성, 비소속성을 환기당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나 부모의 출생국인 한국으로의 소속성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독일인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자기균열을 체험한다. 독일 속의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이 문화적으로 독일에 속한다고 생각하나, 자아 및 타자정체성의 시발점인 몸 자체의 다름으로 인하여 소속성이 일깨워지고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민2세들은 스스로를 독일문화에 귀속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 간 횡단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이들의 가시적으로 ‘다른 몸’은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러한 상황을 자주 접하면서, 또한 화려한 경력에도 계속되는 구직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저자는 “독일은 도대체 나의 집인 적인 있던가?”(2012, 30)라고 자문한다. 사회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민2세들은 자신들이 독일사회의 외국인, 이방인이라 느끼며 스스로 이러한 선긋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피부색의 차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서 독일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강하다.³⁴⁾

현은 국제공항에서의 한 구체적 에피소드를 전달한다. 현은 수속을 위해 유럽시민과 비유럽시민 줄 가운데 독일여권을 가진 독일인으로 전자의 줄에 서 있다. 그때 마침 규모가 매우 큰 아시아인들의 단체가 도착하여 비-유럽인줄에 줄을 섰을 때,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는 독일인은 이 광경을 “아시아인들의 습격 *Asiatische Invasion*”이라고 그의 등 뒤에서 말한다. 이 경험은 그에게 다시금 그가 온전히 독일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이민자로서의 삶은 변함이 없”(2012, 17)으며,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34) 이선희(2012), p. 315.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아직도 독일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2, 26)는 냉정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2세대들은 이때 자신이 이때까지 부모세대의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한국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 베트남계 독일인인 민-하 Trinh T. Minh-ha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체험을 정리한다. “정체성이란 새롭게 다시 떠난다는 형태를 가진다. 실제적으로 정체성은 이제까지 부정해왔던 출신으로의 회귀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이때 다르게 떠날 가능성과 다른 중단가능성과 다른 도착의 가능성을 가지고 말이다.”³⁵⁾

이들에게 한국 방문의 경험은 한편으로는 외모상의 유사성과 한국문화에의 부분적 익숙함으로 가까움을 느끼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적 이질성, 문화적 거리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방식의 ‘낯섦’을 느끼게 만들어 또다시 온전한 한국소속성을 부정하게 된다. 마르틴 현의 경우 먼 친척 방문으로 한국방문이 시작되어 이러한 낯섦이 유럽의 한국계 입양인들의 경우보다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인이 되려면 한국적 정서와 가치체계, 일상사를 다시 배워야 한다. 2세대들이 한국을 모국으로 삼으려 노력할 때 모순은 심해진다. “자신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핏줄의 감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나라에 대한 지식은 추상적이고 감각적인 부분에 그치”기 때문이다.³⁶⁾ 이민2세대들은 두 문화, 두 인종 사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혼종성, 교차성과 동시에 부분적 소속성을 인식한다.

4.3. 타자정체성, 고정관념 그리고 임파워링

대체적으로 이민자들에 대한 주류사회의 고정관점은 많은 경우 유사한데 “교양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 약자이며, 범죄자이고, 신분상승의

35) Trinh T. Minh-ha (1995), *Texte, Filme und Gespäche*, München: Kunstverein, p. 7.

36) 크리스티안 들라팡카뉴(2013), p. 323.

기회가 적고, 통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2008, 21). 그러나 독일사회의 한국인 이민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와 편차가 크다. 한국에서는 당시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주로 고학력자가 파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일에서는 주로 광부와 간호사라는 직업의 ‘이주노동자’들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다. 이들은 현재 대체로 성실하고 범죄가 적으며 통합의지가 강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류를 이룬다. 광부들이 3년 계약을 마치고 전업을 많이 한 것과 달리 특히 정년에 이르기까지 직업을 계속 유지한 간호사들은 독일 사회에 더욱 좋은 인상을 남겼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교포들은 모범 이민자로 알려져 있고 최근의 베트남인 역시 유사하다.

그러나 마르틴 현을 위시한 이민2세들은 최근 이러한 평가에 대해 메타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에게 “모범적”이라는 평가는 독일 주류사회의 요구를 다 수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세들도 평가의 긍정적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현의 분석에 따르면 직업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이민1세대는 사회의 하층 계층인 (이주)노동자층에 속하였다면, 2세대들은 이미 거의 모두 고등교육을 받고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속하게 되었고 범죄율 또한 매우 낮다. 또한 다른 이민자 그룹들과 달리 그들은 커뮤니티를 구성해 집단 거주를 하면서 자기문화를 폐쇄적으로 주장하지도 않는다.³⁷⁾ 무엇보다도 독일사회에 통합이 잘 된 그룹이며, 한국인들은 다른 이민자그룹이라면 3대에 걸쳐서도 못할 일들을 빠르게 해낸 것이다. 2세들의 비판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은 중국인이나 베트남인들과 달리 존재감이 거의 없고, 왜 이들이 독일에 왔는지, 또한 독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독일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는가에 있다. 또한 현은 독일인이 한국인의 가족관계나 소원들, 사고방식을 잘 모르고, 더군다나 아시아인들은 수동적이고 조용하며 조화를 중시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잘못된 인

37) 크리스티안 들라팡카뉴(2013), pp. 308-324.

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2008, 23). 2세들이 볼 때 한국인 이미지에 대한 중요한 비판점은 “침묵하는”, “말 없는 아시아인” 이미지이다. 독일에서 “말 없이 조용한 이민자”로 알려져 있는 한국인들, “이민자 통합의 모범사례 *Musterbeispiel der Integration*”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인들은 사회에서 공적 발언이 거의 없고 존재감도 거의 없다(2008, 21).³⁸⁾ 이것은 한국계 독일인이 숫자가 적은 것에만 기인하지는 않는다. 침묵은 종종 문화차이로 분석되어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2세대에게는 사회적으로 존재가 의미가 없음을, 또한 자기주장을 하지 않음을 뜻한다. 2세대들은 1세대들이 독일 사회에 비록 이민자로 작은 집단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독일의 경제기적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세대의 수동성과 침묵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부재하는 것이다(2008, 23-24).

2세대들은 이와 달리 한국계 독일인으로서, 소수집단으로서 침묵을 깨고 이제 독일 주류 사회를 향해 발언을 하고자 한다. 마르틴 현의 텍스트는 한국 이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 사회학적으로 임파워링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첫 책의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말 없이 - 예, 언어 없이 - 아니오: 한국과 독일 사이의 경계인 *Lautlos - ja, sprachlos - nein: Grenzgänger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에서 보듯, 현의 첫 번째 책은 두 번째 책과 달리 표지에서 독일어와 한글을 모두 사용하면서 말 그대로 경계인적 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1장 「책을 쓴 이유」장에서 이제까지 “모범적인 이민자”로 알려져 있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한국계 독일인로서 “아니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이제부터는 자기 발언을 하겠다고 밝힌다. 마르틴 현의 텍스트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소수집단인 독일 한인2세대들이 독일 사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현은 그간의 인구분포

38) <http://www.martinyun.de/former-korean-german-hockey-player-on-quest-for-ethnic-identity/>

와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인해 독일사회가 통합사회임을 받아들였다고 분석하지만, 이주자들이 “말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러하였다(2008, 25). 한국인 역시 이러한 “소리 없는 통합 *lautlose Integration*”을 행한, 특별한 소수집단으로서의 요구가 없는 집단으로 간주되었었다.

이에 맞서 현이 바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독일 주류사회의 인식의 변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의 연대와 목소리내기이다. 다문화사회는 이주민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일 주류사회 역시 이러한 다문화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두 번째 요구인 연대는 개인화 요구와 서로 모순을 이루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기존의 주류사회의 편견에 맞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더 이상 자신들을 한국인 집단으로 집단 고정관념을 통해 보지 말고 독일인으로 개인으로 보고 인정해달라는 요구인 동시에 이제까지 말없는 침묵하는 동양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요구를 당당히 언어화하고 이때 같은 문제를 가진 이주민들끼리의 연대를 이루겠다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독일사회에서 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적응 및 정착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터키나 동구권 이주민들과 달리 이제까지 ‘민족적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보다는 ‘인종적 소수집단’으로 남아 있었다.³⁹⁾ 독일의 한국인들은 미국에서처럼 한인 타운을 만들어 집단 거주지를 만들지 않고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독일사회에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때 이는 쉽지 않았다. 독일 내 한국인들은 1975년,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추방에 맞서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여 여성, 이주민, 노동자로서 독일사회의 ‘3중의 타자’로서 공적 목소리를 낸 사례 이후에 집단의 목소리를 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베를린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과 베트남

39) 이러한 거주양식은 미국의 차이나타운이나 코리아타운과는 다르다.

배경을 가진 청년단체 ‘코리엔테이션 *korientation*’에서 보듯 독일 속의 아시아인들은 스스로의 소수집단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인종적, 문화적 상황을 자각하고 있으며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임파워링하고 있다.⁴⁰⁾ 마르틴 현도 공적분야에서 일하는 작가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독일 이민1세대들은 우리 2세대들이 차별과 멸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싸워왔다. 나도 3세대들이 독일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 그게 내 학업의 과정이자 목표다.”⁴¹⁾

자기목소리내기와 관련하여 다른 한편 한인 1세대들이 2세대에게 거는 기대와 요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1세대들은 2세대들이 현재 비록 고등학력을 바탕으로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지만 독일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여피식 개인주의적 삶(*Yuppismus*)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낸다(2008, 80). 이들은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라는 연대를 가지고 뭉쳐야 사회에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의견은 2세 스스로에서 나온 집단적인 연대에 대한 의식이나 목소리와는 내용상 차이를 보인다. 이민2세대들은 부모들이 독일의 한국인이라기보다는 한국계 독일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⁴²⁾ 한국인 사회 내부에서가 아니라 독일 사회를 상대로 자기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0) “아시아-독일적” 시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단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들의 홈페이지 <http://www.korientation.de/> 참조.

41)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01&aid=0001369138>

42) 때문에 2세대에게 독일의 한국인단체에서의 1세대들의 권력다툼은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기목소리를 내는 것과 달리 감투싸움으로 비친다.

5. 동화의 통합의 아포리아

노이만은 서부유대인 카프카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동화의 아포리아』라고 붙였다.⁴³⁾ 서부유대인들이 계몽주의 이후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택한 유럽시민사회로의 동화는 그들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해준 것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독일 주류사회는 이주민문제에 관하여 이주자들이 동화나 통합을 통해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한국인 2세들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되고 이방인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2세들은 자신이 출생해서 교육받고 성장한 독일 사회에 속한다고 ‘문화적 정체성’, ‘지역 정체성’을 주장하지만, 주류사회는 이들의 가시적으로 표가 나는 ‘독일인의 몸’과 다른 ‘아시아적 몸’ 때문에 끊임없이 지역과 민족, 인종적 출신을 환기시키고 이들을 타자화, 주변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현대에 있어서도 유럽중심주의적 시선의 지배와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오래된 전통 때문에 ‘아시아인’이라고 인지되는 사람들은 출생지나, 문화적 능력, 자기규정, 그리고 실제 국적에 상관없이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다 ‘문화적, 인종적 타자’로 낙인찍혀 있다.”⁴⁴⁾

이러한 자아정체성과 타자정체성의 갈등과 불일치는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하지만, 한인2세 스스로의 언어로 듣는다는 점에서 마르틴 현의

43) Neumann, Bernd (2007), Franz Kafka. Aporien der Assimilation: Eine Rekonstruktion seines Romanwerks, München: Fink.

44) Kien Nigh Ha (2014), p. 2.

텍스트는 의미심장하다. 마르틴 현의 경우는 동화가 아니라 통합의 길을 택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력과 결과 사이의 부조화, 아포리아를 기록하고 동시에 현대의 독일인 정체성의 다양화를 텍스트에 기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2세대들은 독일사회를 향해 자기목소리를 내고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독일어로 작품을 발표하는 2세 작가 중 ‘한국의 카미너’라 불리는 마르틴 현의 두 텍스트를 살펴 보았는데, 그의 텍스트는 인종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여 ‘인종색맹 farbeblind’적 상황을 떠는 유럽에서 일상적 인종주의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참고문헌

【자 료】

- Hyun, Martin (2012), *Ohne Fleiss kein Reis: Wie ich ein guter Deutscher wurde*, München; btb-Verlag.
- _____ (2008), *Lautlos – ja, sprachlos – nein: Grenzgänger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Hamburg: EB-Verlag.

【논 저】

- 들라판카뉴, 크리스티앙(2013), 하정희 역, 『인종차별의 역사』, 서울: 예지.
- 리, 돈(2002), 임주현 역, 『엘로우』, 서울: 문학사상.
- 마르티니엘로, 마르코(2002), 윤진 역,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 박경태(2009), 『인종주의』, 서울: 책세상.
- 박정준(2014), 한국 출신 국외입양인 문학에 나타난 자아 재구성의 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태수(2006), 「제노포비아 현상과 원인: 영국, 프랑스, 독일 비교연구」, 김세균 외, 『유럽의 제노포비아』, 서울: 문화과학사, pp. 159-194.
- 이선희(2012), 「재독한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인식문제와 정체성 변천 과정」, 『한국사 연구』 158, pp. 301-335.
- 이숙경(2007),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 찾기 - 독일 영화 <미치고 싶을 때>에 대한 연구」, 『카프카연구』 17, pp. 313-326.
- 이영석(2015), 「파독 근로자 출신 독일 교민들의 현황과 한국에 대한 의식」, 『독일어문학』 69, pp. 127-152.
- 이흥경(2012), 「카낙의 역담화」, 『독일어문학』 56, pp. 321-338.
- 이희영(2015), 「이주 노동자의 생애체험과 사회운동. 독일로 간 한국인 1세대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8, pp. 281-316.
- 장명학(2006), 「독일의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한 연구」, 김세균 외, 『유럽의 제노포비아』, 서울: 문화과학사, pp. 89-126.
- 최윤영(2016), 『민족의 통일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14), 「인종의 가시성과 소속성 - 독일 유대인의 동화와 패싱을 중심으로」

- 으로, 『독일어문화권연구』 23, pp. 183-202.
- 최윤영(2008), 「이민2세대 문학에 나타난 공간과 정체성의 문제. <미치고 싶은 때>와 『젤람 베를린』을 중심으로」, 『독일문학』 106, pp. 278-301.
- Perrillo, Vincent, N. (2010),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역, 『인종과 민족 관계의 이해』, 서울: 박영사.
- Assmann, Jan (2002), *Das kulturelle Gedächtnis*, München: Beck.
- Barner, Wilfrid (Hrsg.)(2006), *Geschichte der deutschen Literatur von 1945 bis zur Gegenwart*, München: Beck.
- Marianne Bechhaus-Gerst et al. (Hrsg.)(2009), *AfrikanerInnen in Deutschland und schwarze Deutsche – Geschichte und Gegenwart*, Münster: LIT Verlag.
- Ha, Kien Nigh (2014), Asiatische Diaspora in Deutschland, <https://heimatkunde.boell.de/2014/01/29/asiatische-diaspora-deutschland>.
- _____ (2012), *Asiatische Deutsche*. Berlin: Assoziation V.
- Kaminer, Wladimir (2010), *Salve Papa*, München: Goldmann.
- _____ (2008), *Aufgeben ist nicht mein Weg: Bildungswelten in der Einwanderungsgesellschaft*, Gütersloh: Bertelsmann Stiftung.
- _____ (2000), *Russendisko*, München: Manhattan-Verlag.
- Mecherli, Paul et al. (2016), *Die Dämonisierung der Anderen. Rassismuskritik der Gegenwart*, Bielefeld: transcript.
- Melter, Claus et al. (Hrsg.)(2009), *Rassismuskritik: Band 1: Rassismustheorie und –forschung*, Schwalbach: Wochenschauverlag.
- Minh-ha, Trinh T. (1995), *Texte, Filme und Gespäche*, München: Kunstverein.
- Neumann, Bernd (2007), *Franz Kafka. Aporien der Assimilation: Eine Rekonstruktion seines Romanwerks*, München: Fink.
- Oppong, Marvin (Hrsg.)(2011), *Migranten in der deutschen Politik*, Wiesbaden: VS- Verlag.
- <http://www.korientation.de/>.
- <https://www.mut-gegen-rechte-gewalt.de/news/chronik-der-gewalt/todesopfer-rechts-extremer-und-rassistischer-gewalt-seit-1990>.
- <http://www.martinhyun.de/former-korean-german-hockey-player-on-quest-for-ethnic-identity/>.

원고 접수일: 2017년 1월 2일

심사 완료일: 2017년 1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2월 2일

ZUSAMMENFASSUNG

Koreanische Deutsche und Xenophobie
in der deutschen Gesellschaft

— Eine Untersuchung am Beispiel von zwei Texten Martin Hyuns

Choi, Yun-Young*

Die Globalisierung erleichtert einerseits Grenzüberschreitungen und vervielfacht Möglichkeiten der Lebensgestaltung sowie Arbeitschancen, verstärkt dabei aber andererseits die Verbreitung von Xenophobie in der Mehrheitsgesellschaft. Auch die deutsche Gesellschaft zeigt ebenfalls angesichts der massenhaften Aufnahme von Flüchtlingen und Gastarbeitern, deren Status sich inzwischen zum Migranten gewandelt hat, Ängste vor den Fremden, vor einer angeblichen ‘Überfremdung’ des Landes. Die Reaktion der Mehrheitsgesellschaft variiert zwischen der Akzeptanz und Ablehnung, abhängig sowohl von ihrer eigenen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Lage der betroffenen Deutschen als auch von der Herkunft der jeweiligen Fremden. Bisher wurde in der Forschung der modernen Xenophobie-Forschung im deutschsprachigen Raum der rassistische Aspekt wenig beachtet, vor allem in Bezug auf asiatische Deutsche.

Asiatische Fremde erleben rassistisch geprägte Xenophobie in verschiedenen Formen und sehen sich im Alltag mit weit verbreiteten, sichtbaren

* Professor,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 unsichtbaren Formen von Diskriminierung und Ausschließung konfrontiert. Heutzutage beginnt die zweite Generation der koreanischen Migranten, deren Eltern meist als Bergarbeiter oder Krankenschwestern nach Deutschland kamen, das Schweigen der Eltern zu brechen und über ihr Leben gegenüber der deutschen Öffentlichkeit zu schreiben: Ein Beispiel dafür ist Martin Hyun. Seine beiden Texten *Lautlos – ja, sprachlos – nein: Grenzgänger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2008) und *Ohne Fleiss kein Reis* (2012) werden in diesem Beitrag als Ausdruck der Selbstbehauptung und des Empowering der zweiten Generation interpretiert. Die Vertreter der zweiten Generation unterscheiden sich von der ersten Generation durch signifikante Differenzen in ihrer multiplen Identifizierung und Selbstverortung in der deutschen Mehrheitsgesellschaft. Sie erleben in der Familie Konflikte mit den Eltern in ihrer kulturellen und nationalen Identifikation und fühlen sich der deutschen Kultur näher, während sie sich gegenüber der deutschen weißen Mehrheitsgesellschaft durch ihr sichtbar asiatisches Aussehen oft als nicht zugehörig fühlen, obwohl sie kulturell vollkommen integriert sind. Die zweite Generation erhebt in ihrer Reflexion über die Integration den Anspruch, einerseits als vollberechtigter deutscher Mitbürger und Individuum anerkannt zu werden und andererseits durch Solidarität mit den anderen asiatischen Migrantengruppen ihre besondere Existenz zu behaupten. In seinem humorvollen, aber kritischen Stil thematisiert Hyun die Aporie der Assimilation der zweiten Koreaner-Generation zwischen den Wurzeln ihrer Herkunft und der Assimilation in die deutsche Mehrheitsgesellschaft.

